

내 임금과 일자리가 나빠진 진짜 이유,

재벌대문이었어?

내 임금은 맨날 최저임금, 임금인상분조차 납품단가에 반영 않는 횡포

한국 경제의 정점에 서있는 재벌 대기업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미리 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분조차 납품단가 인상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납품단가를 내려달라는 압박을 3,6,12개월마다 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인상을 더 어렵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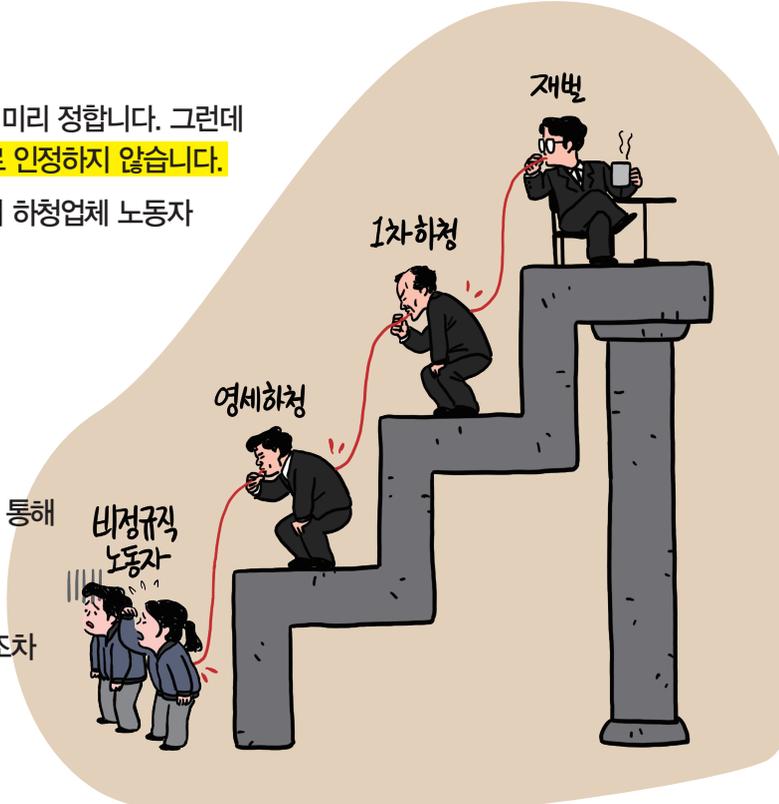
하청기업을 쥐어짜며 온갖 위험을 전가하는 재벌횡포를 바꾸는 것. 재벌개혁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위험천만 즉별 경영

10대 재벌 총수일가는 **불과 1%의 주식만 갖고 편법적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는 **재벌 총수의 경영 실패**로 특정 계열사가 부실해질 경우, 다른 **계열사로 위험이 전가**되는 위험천만한 구조이며, 경영실패의 책임조차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박삼구 회장의 경영실패가 잘 나가던 금호타이어를 워크아웃으로 밀어넣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떠넘겼던 것이 가까운 예입니다.



세습할 수 없는 경영권을 3대째 세습

특히, **재벌 3세에게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온갖 편법, 탈법이 자행**됩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에게 30억원의 주식을 상속 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을 1,233배로 불렸습니다. 오로지 소수 계열사만 높은 이익을 얻을 뿐, 다른 계열사와 비계열사 하청업체들의 이익은 감소합니다.

삼성그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내부 부당거래로 45억원을 1,700배로 불러 삼성그룹을 손에 넣었습니다. 납부한 세금은 이견희 회장이 상속한 60억원에 대한 세금 16억원에 불과합니다. 뿐만아니라 주가조작과 구조조정의 피해는 국민과 노동자의 몫이었습니다. 작년 6개 계열사를 매각했고 5,700여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5천여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단물만 쏙 빼먹고 해외이전

삼성 광주공장은 2011년 세탁기 일부 생산라인을 멕시코로 돌렸다가 국내로 가져와 다시 중국으로 옮겼으며, 2014년에는 청소기 생산라인을, 올해 1월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수많은 이익을 올렸지만, 해외이전으로 인한 물량감소로 하청업체가 부도나고,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 등 지역사회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단 한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7월 22일 금속노조는 시민들과 함께 재벌개혁을 외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재벌개혁, 금속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언제나 경영위기라 말하지만 사내유보금을 쌓고 배당잔치를 벌이는 재벌. 정부가 길 터준 금융, 서비스, 유통, 병원 등의 돈벌이에 혈안 된 재벌. 재벌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위태롭기 짝이 없어진 제조업. 하청 중소기업체와 노동자 쥐어짜기로 인해 항상 제자리인 임금. 법 위에 군림하며 노동조합조차 직접 통제, 관리하려는 재벌. 바로 재벌이 문제입니다.

이를 바꾸고자 금속노조는 2대 재벌인 '현대기아차그룹'의 대표가 나와 노동자,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공동교섭' 자리를 열었지만,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금속노조 조합원 15만 명이 7월 22일 총파업에 나서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참여 촉구와 재벌개혁 실시를 외칩니다.

재벌개혁, 우리의 요구

재벌총수 주식배당 출연하여 일자리 창출!

제조업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중소기업 고용율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청년실업률은 20%대로 역대 최고입니다. 재벌 총수일가는 해마다 막대한 이익배당금을 챙겨갑니다. 이 배당금 중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요구합니다.

재벌 법인세 확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으로 5년간(2009~2013) 기업들의 감세 혜택은 38조7327억원, 이중 재벌계열사가 26조원으로 전체 법인의 0.5%밖에 안 되는 재벌대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의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담배세, 공공요금 인상, 물가인상 등 서민 부담은 날로 늘어납니다.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700조원인 반면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1.200조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내유보금 700조 중 1%인 7조는 연봉 3천만원짜리 일자리 23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재벌의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 출연 등 확실한 재원이 있는데도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노동자 임금 깎아 그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단지 임금을 깎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원하청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의 수익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이는 원청사가 하청사에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해 벌어진 일입니다. 원하청 초과이익 공유제는 원·하청이 목표한 이익을 초과한 부분을 공유하여 활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이익을 원청이 가져가는 대신, 중소기업장의 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납부 회피 목적 편법 중단!

재벌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증여세 등을 물지 않고 편법·탈법으로 물려주려 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합니다.

그 수법은 나날이 진화해 면세 혜택을 누리는 해외법인을 통해 수익금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비자금 관리,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몰아 주기와 고배당을 적용한 편법적 재산상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갑니다.

노동자들은 10원 하나 안 빼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천문학적 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의 편법·탈법 탈세 행위는 처벌도 단속도 시늉만 냅니다. 이를 제대로 잡아 처벌해야 합니다.



7월 22일(금) 금속노조와 함께 재벌개혁을 외칠 시민참가단을 모집합니다

오전 11시 출발

오후 4시 금속노조 총파업대회 / 현대기아차그룹본사 · 국회 동시개최

오후 8시 <을>들의 합창 시민한마당 / 광화문 북광장

공연 : 이은미, 안치환과자유, 이한철밴드, 이소선합창단, 우리나라, 경험과상상 등

참가 문의 062-525-5313, 1800-9518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